

20년 함께 해온 바늘과 실의 식물 사랑



이성규 박사(왼쪽)와 사진작가 김정명 씨.

식물학자인 이성규 박사(65·농학)는 사진작가 김정명 씨(57)과의 관계를 ‘실과 바늘’에 비유한다.

“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김 작가는 시청각 자제와 교재 제작사인 선영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학생들에게 보여줄 시청각자료가 필요해 김 작가를 찾아갔는데 거기 바늘이 있지 뭐니까.”

벌써 20년 전 일이다. 처음 만났지만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. 식물생태학을 전공한 이 박사는 식물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었다. 중학교 때부터 카메라 하나 들고 산과 들을 쏘다지기 시작한 김 작가 역시 주관심사는 한국 자생식물이었다. 하지만 서로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. 이 박사는 학자여서 들과 산보다는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. 김 작가는 현장에서 수많은 식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막상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모르는 게 더 많았다. 그렇지 않아도 답답

하던 차에 김 작가는 의심나는 게 있으면 바로 이 박사에게 달려갔다.

“어느 날 제가 물었죠. ‘사진을 찍다 보면 꽃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알아들 수가 없다’고 말입니다. 지금도 그렇지만, 이 박사님은 제 사진작업의 자문역할을 해주었습니다. 이 박사님이 있었기에 제 사진작업도 발전할 수 있었던 셈이죠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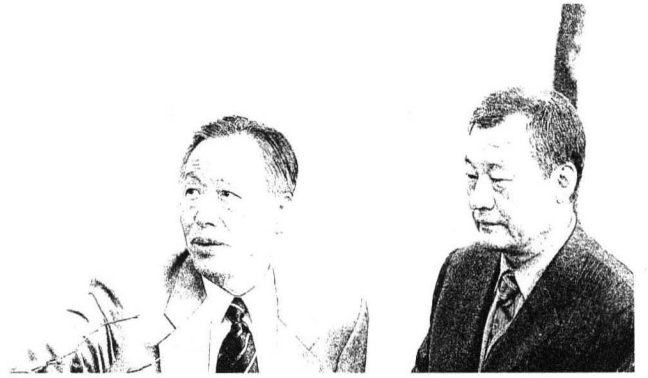
백두산 툰드라(수목한계선 이상에 발달한 평원) 지역의 생태를 관찰한 《식물의 살아남기》는 올해 정년퇴임한 이 교수에게 주는 김 작가의 선물이기도 하다.

“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를 백두산으



《식물의 살아남기》

이성규 지음·김정명 사진 | 대원사 | 202쪽 | 값 18,000원



로이끈 건 김 작가였습니다. 김 작가가 먼저 경비를 딸 레니 함께 백두산으로 가고 그러더군요. 물론 그 전에도 학회차원에서 백두산에 오른 적은 있지만 김 작가와 함께 한 백두산행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.”

열악한 환경 탓에 변화가 매우 느린 백두산 툰드라 지역에는 아주 옛적부터 삶을 면면히 이어온 식물 역사의 산 증거가 있었다. 이 박사는 김 작가의 도움으로 '땅 표면에 밀착해 옆으로 기어가는 줄기, 열기설기 엉켜 있는 가지와 뻗뻗하게 붙어 있는 작은 잎이 어울려 만드는 카펫 모양의 소관목 군락, 키 작은 식물들이 한데 뭉쳐 만든 유선형의 둥근 돛' 과 같이 독특한 백두산 식물의 생태를 관찰해 두 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다.

또한 이 박사는 김 작가와의 동행을 계기로 '앞으로 다시는 사진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겠다' 고 선언하기도 했다. 김 작가는 이미 8,9년째 14차례나 백두산을 다녀왔고 한번 가면 식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 달 이상 머무는 게 기본이었다.

“그렇게 힘들게 찍은 사진을 그냥 달라고 했으니... 같이 백두산을 다니면서 김 작가에게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일례로 고산지대에서 식물이 어떻게 바람에 견디는지 알기 위해서 김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초속 35미터의 바람을 낼 수 있는 송풍기를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짐꾼이 동행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짐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소형발전기와 대형송풍기를 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.”

고산지대에서 바람의 위력은 대단했다. 초속 30미터만 돼도 성인 남자가 서 있기 곤란할 정도였다. 당연히 사진촬영은 불가능했다. 하지만 김 작가가 가지고 간 송풍기 덕분에 이 박사는 백두산 정상에 노랑계 물들이며 햇별을 쬐던 두메양귀비가 강풍이 불자 꽃봉우리를 180도 회전시켜 꽃가루를 보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(63쪽). 또한 풍선난의 꽃잎이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발견했다. 바람이 강해질수록 날개꽃잎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돌아갔다. 역시 꽃가루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(64쪽). 이외에도 한 종의 식물(전나무)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종의 식물(사스래나무)을 물리치는 천이과정을 사진으로 담은 건 큰 성과였다.

“전 김 작가를 '실험작가' 라고 부릅니다. 단지 사물을 보고 셔터를 누르는 사진작가와와는 다릅니다. 식물학자 이상으로 식물에 대해 탐구하고 또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고민합니다.”

자연을 찍을 때 필요한 가장 고도의 테크닉은 기다림이다. 남들은 감탄하

고 지나칠 때 김 작가는 카메라 앵글을 들이대고 자연이 자신의 은밀한 속살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.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드러낸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게 많다는 것을 김 작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.

“우리는 사물들에 대해 속단하곤 합니다. 잠깐 보고 마치 모든 것을 본 것인 양 떠들곤 하죠.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방금 본 건 그 사물의 일부분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찍고 싶은 게 갑자기 눈에 띄면 비닐 한 장 뒤집어쓰고 몇 시간 견디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시키거나 사명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다만 좋아서 하는 일죠.”

이 박사는 이런 김 작가 덕분에 오히려 식물에 대해 '엄청난 것' 을 배운다. 가령 나뭇잎이 간혹 붉은 색을 띠는 경우가 있다. 도감에서는 이를 변이종이라고 설명한다. 하지만 이는 정말 잠깐 보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. 개다래나무는 꽃이 필 무렵이면 많은 잎 중에서 일부가 옅은 붉은 색이 감도는 흰색으로 변한다. 이 잎은 멀리서 보면 흰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흰색의 작은 꽃은 눈에 안보이는 잎 뒤쪽에 피어있다. 작은 꽃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잎의 색을 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. 꽃이 지고나면 잎도 역시 녹색으로 돌아온다.

학자는 자신인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건 김 작가니 이 박사의 입장에서선 간혹 자존심도 상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. 하지만 식물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아는 이 박사는 김 작가가 그렇게 고맙고 대단해 보일 수 없다. 어쩔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지만 누가 바늘이고 실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. **한지**

취재 신동섭 기자 · 사진 박신우 기자